

간사이에 남겨진 조선통신사 발자취



関西と朝鮮通信使

간사이와 조선통신사

- | | |
|---------------|------------------|
| 1. 兵庫(室津・兵庫津) | 1. 효고(무로쓰 · 효고쓰) |
| 2. 大坂 | 2. 오사카 |
| 3. 枚方 | 3. 히라카타 |
| 4. 淀 | 4. 요도 |
| 5. 京都 | 5. 교토 |
| 6. 大津 | 6. 오쓰 |
| 7. 守山 | 7. 모리야마 |
| 8. 近江八幡 | 8. 오미하치만 |
| 9. 彦根 | 9. 히코네 |

1. 兵庫(室津・兵庫津)・효고(무로쓰・효고쓰)



A. 室津(たつの市)・무로쓰(타츠노시)

1. 地域概観・지역개관

朝鮮通信使の江戸訪問による姫路藩と尼崎藩の朝鮮通信使対応数は総11回で1764年まで続きます。瀬戸内の海路を通過した一行は潮や風の影響を受ける船旅だったことから、兵庫では室津(現・たつの市)と兵庫津(現・神戸市)の港に寄港します。姫路藩の飛び地だった室津では姫路藩、幕府領だった兵庫津では尼崎藩が、それぞれ接待にあたりました。また、播磨の一部海域では明石藩も水先案内の役目をはたします。一行をもてなすため各地で農民なども動員され、たいへんな苦勞があ

朝鮮통신사의 에도 방문에 따른 히메지번과 아마가사키번의 조선통신사 접객 횟수는 총11회로 쓰시마까지만 방문했던 마지막 12번째를 제외하면 1607년부터 1764년까지 빠진 적이 없다.

세토나이카이(瀬戸内海)의 해로를 따라온 통신사 일행은 조류나 바람의 영향을 받는 배 여행이어서, 효고에서는 무로쓰(타츠노시)와 효고즈(코베시)의 항구에 기항했다. 히메지번의 원격지였던 영지 무로쓰는 히메지번이 막부 직할지였던 효고즈에서는 아마가사키번이 각각 접대에 임했다. 또한 하리마 내의 일부 해역에서는 아카시번도 뱃길안

ったようです。

朝鮮通信使の移動の規模は、通信使の一行 500名とは別に対馬藩の護衛数百人が毎回、地域を管轄する大名の案内人、案内船1,000隻余りです。明石海峡の一部海域に対する案内に明石藩も参加しました。併せて、一行をもてなすため各地の農民も動員されます。

1719(享保4)年の第9回の訪問時、姫路藩が動員した乗組員は約20の村から2,223人を動員し接待した料理は海産物が豪華に用意されて献上されます。

朝鮮通信使に対する待遇は徳川幕府の威信をかけた特別の歓待で、予算は100万両かかったといわれています。1711(正徳元)年の時は、

新井白石は酒席接待や蒔絵の塗り膳の高価なものを厳禁し総額を60万両に下げます。

100万両は当時幕府の年間予算を超えています。各地を通過する藩主の負担は、10万石以上は自費、10万石以下は幕府援助です。

陸路の京都から江戸まで延べ人夫23万人、馬延べ4万頭。この負担は通過する多くの藩の領民を苦しめました。

新井白石の死後16年、姫路藩主の松平明矩は室津の接待費用3万両を領民に押し付けたため、1741(寛保元)年に大規模な播州一揆が起きています。

내의 역할을 완수했다. 일행의 대접을 위해 각지에서 농민들도 동원되어 고생을 했던 것 같다.

조선통신사 이동 규모는 통신사 일행 500명과 별도로 쓰시마번(대마도번)의 호위 수행원 200여명, 지역을 관할하는 영주의 안내인과 안내선 1,000여척이었다고 한다. 효고현 일부 해역 안내에 아카시번이 참여했고, 일행을 대접하기 위한 지역민들도 동원되었다고 전한다. 1719년 9회차 방문시 히메지번이 동원한 선원은 약20개 마을 2,223명이었으며, 접대한 요리는 해산물로 호화롭게 준비되어 진상되었다.

조선통신사에 대한 대우는 도쿠가와 막부의 위신을 건 특별한 환대로, 전국의 경비를 합치면 100만 냥이 들었다고 한다.

1711년에는 아라이 하쿠세키가 술자리 접대나 고가의 호화로운 밥상 준비를 엄금하여 60만 냥으로 낮추어졌다.

100만 냥은 당시 막부의 연간 예산을 넘어선 것이다. 각 지역을 통과하는 번주의 부담은 10만석 이상 규모의 영지를 가진 번은 자비로 부담하고, 그 이하 영지는 막부가 지원했다.

육로인 교토에서 에도까지 총인원은 23만 명, 말총 4만 마리가 동원되었다. 이 부담은 통신사가 통과하는 많은 번의 영민(領民)을 괴롭혔다.

아라이 하쿠세키의 사후 16년, 히메지 번주 마츠다이라 아키노리는 무로쓰의 접대 비용 3만 냥을 영내 주민에게 강요했기 때문에 1741년에 대규모 민중폭동(播州一揆반슈잇키)이 일어났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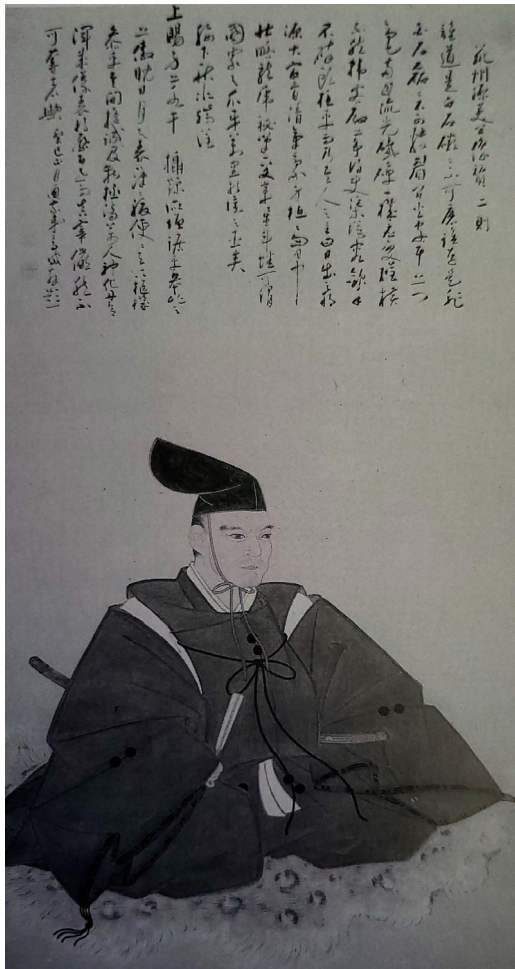
2. 関連人物・관련인물

1. 新井白石・아라이하쿠세키

江戸時代中期の旗本・政治家・朱子学者。一介の無役の旗本でありながら6代將軍・徳川家宣の侍講として側用人を勤め、間部詮房とともに幕政を実質的に主導し、正徳の治と呼ばれる一時代をもたらす一翼を担います。家

宣の死後も幼少の7代將軍・徳川家継を間部詮房とともに盛り立てますが、政權の蚊帳の外におかれた譜代大名との間に軋轢が生じ、また家継が早くに死に、8代將軍に徳川吉宗が就くと、失脚し引退します。晩年は著述活動に勤めます。学問は朱子学、歴史学、地理学、言語学、文学と多岐にわたります。また詩人で多くの漢詩が伝わりました。

에도시대 중기의 하타모토(旗本; 막부 직할 가신단 중 녹봉이 1만석 이하인 무사)·정치가·성리학자이다. 일개의 직책이 없는 하타모토였으나, 6대 장군·도쿠가와 이에노부의 시강(경서를 강의하던 직책)으로 오소바고요닌(御側御用人; 막부 직책으로 쇼군 측근에서 쇼군의 명령 등을 전달하는 역할을 함)인 마나베 아키후사와 함께 막부 정치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세이토쿠의 정치(正徳の治; 에도시대인 세이토쿠년을 중심으로 진행된 정치개혁을 지칭)로 불리는 시대를 가져오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이에노부 사후에도 어린 군주인 7대 장군 도쿠가와 이에쓰구를 마나베와 함께 받들었으나 정권으로부터 소외 받은 후다이 다이묘(譜代大名 : 세키가하라 전투 이전부터 도쿠가와 가문의 가신 출신인 영주들)와 갈등을 일으키고, 이에쓰구가 요절하고 8대 장군에 도쿠가와 요시무네가 취임한 후 실각하여 은퇴했다. 만년은 저술 활동에 힘썼다. 학문은 주자학, 역사학, 지리학, 언어학, 문학과 다방면에 걸쳐 있다. 또한 시인으로 많은 한시가 전해진다.



新井白石肖像(新井家蔵)
아라이하쿠세키초상(아라이 가문 소장)

2. 池田輝政・이케다테루마사

安土桃山時代から江戸時代前期にかけての武將・大名です。美濃池尻城主、同大垣城主、同岐阜城主、三河吉田城主を経て、播磨姫路藩の初代藩主となりました。姫路城を今に残る姿に大規模に修築したことで知られています。

아즈치모모야마 시대부터 에도시대 전기에 걸쳐 활동한 무장이자 영주이다. 미노의 이케지리 성주, 동 오가키 성주, 동 기후 성주, 미카와 요시다 성주를 거쳐, 하리마 히메지 번의 초대 번주가 되었다. 히메지성을 현재의 모습으로 대규모 수리 축성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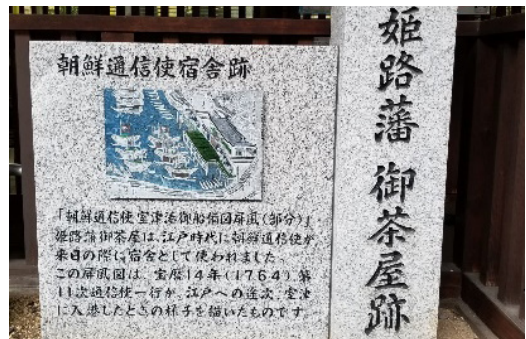
https://ko.wikipedia.org/wiki/이케다_테루마사

3. 疲れ取りの宿・ 숙소

1. 姫路藩の御茶屋跡・히메지번의 오차야터

お茶屋とは領主が領内を巡視する際の休息や宿泊をするための施設で、姫路藩主の池田輝政によって建てられます。朝鮮通信使の三使(正使、副使、従事官)の宿泊は姫路藩御茶屋でした。現在室津には姫路藩御茶屋跡と朝鮮通信使宿舎あとの石碑があります。今は「たつの市室津出張所」と「みなと茶屋」として営業中です。

오차야(お茶屋)란, 영주가 영내를 순시할 때 휴식이나 숙박을 하기 위한 시설로 히메지 번주 이케다 테루마사에 의해 세워졌다. 조선통신사의 삼사(정사, 부사, 종사관)의 숙소는 히메지번 오차야였다. 현재 무로쓰에는 히메지번 오차야터와 조선통신사 숙소터의 비석이 있다. 지금은 “타츠노시 무로쓰 출장소”와 “미나토 오차야”로 영업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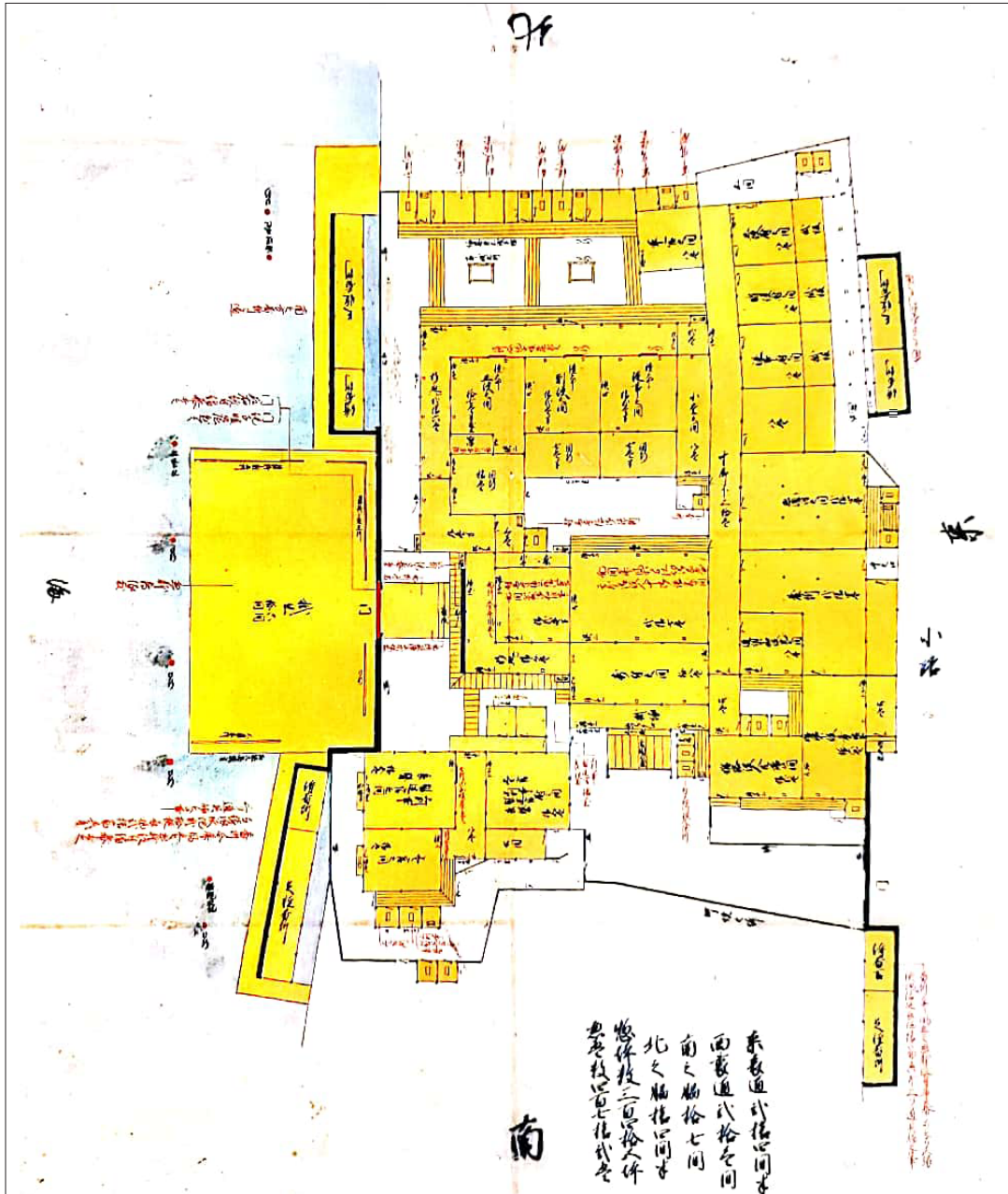
1764年の時三使らは、迎賓館となった藩主の別荘、御茶屋に、中官は浄静寺に、下官たちは寂静寺、徳乗寺に宿泊します。6日間室津に滞在し1月19日に出帆しています。姫路藩の迎接に、正使・趙曦は海槎日記に『牛窓、鞆の浦よりも全てにおいて勝り、正使付き添いの小童にまで菓子が出された』と記載されています。江戸時代の室津は、宿の風呂水が少ないことで有名です。井戸を掘っても塩分の多い水なので、朝鮮通信使の来日に備えて飲み水の確保は近辺

1764년의 경우 삼사들은 영빈관인 번주의 별장과 차야에서, 중관은 조우쇼우지(浄静寺)에서, 하관들은 자쿠쇼우지(寂静寺), 토쿠쇼우지(徳乗寺)에 숙박했다. 6일간 무로쓰에 머물고 1월 19일에 출항했다. 히메지번의 영접에 대해 정사 조엄은 『해차일기』에 “우시마도”, “토모노우라”보다 모든 것이 낫고, 정사의 시중을 드는 소동에게까지 찬과가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에도시대의 무로쓰는 숙소의 목욕물이 적었다. 우물을 파도 염분이 많은 물이기 때문에 조선통신사의 방일에 대비해

の島から集めて備前焼の大きな水瓶でたくわえます。室津を出ると、明石まで姫路藩の船が警護して行きました。

식수를 근처 섬에서 모아 비젠도자기(오카야마 도자기) 큰 물병에 모아두었다. 무로쓰를 출발하면, 아카시까지 히메지번의 배가 경호했다.

2. 播州姫路室津宿舎図・반슈히메지무로쓰숙소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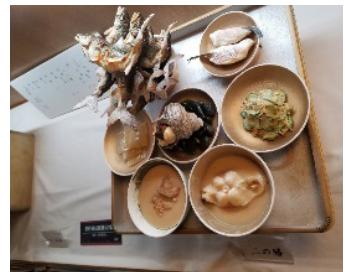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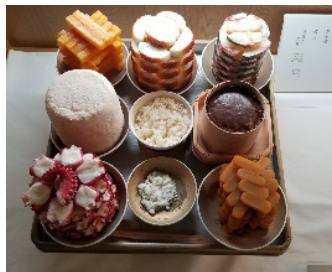
3. 朝鮮通信使饗応料理・조선통신사향응 요리

1682(天和2)年江戸時代の12回の朝鮮通信使の内、7回目に室津で出されたおもてなし(饗応)料理が再現されています。

姫路藩主の本多忠国が正使・副使たちに出した料理七五三,引替膳(本膳、二の膳、三の膳)を「室津饗応記」の朝鮮通信使献立に基づき再現されました。

朝鮮通信使の官位により精進七五三引替膳、精進三汁七菜、精進二汁四菜などの料理が出されました。

1682년(天和 2년) 에도시대 12회에 걸친 조선통신사 방문 중 7회째에 무로쓰에서 나온 접대(향응) 요리를 재현한 것이다. 히메지 번주인 혼다 다다쿠니가 정사·부사들에게 낸 요리 시치고산, 교환상(혼젠, 니노젠, 산노젠)을 “무로쓰 향응기”의 조선통신사에게 올린 식단에 근거해 재현했다고 한다. 조선통신사의 직위에 따라 정진 시치고산 본상 밥상, 3개의 국과 7가지 나물 밥상인 야채중심의 3즙 7채, 2개의 국과 4가지의 나물인 야채중심 2즙4채 밥상 등의 요리가 제공되었다.



4. 残された遺跡・남겨진 유적

1. 朝鮮通信使室津御湊御船備図屏風・조선통신사무로쓰어주어선비도 병풍

兵庫県立歴史博物館には「朝鮮通信使室津御湊御船備図屏風」があります。通信使は6艘の船団です。お茶屋の前に停泊する3艘の船、後ろにト船(一行の荷物などを運ぶ船)。周囲は通信使のために姫路藩が動員した船及び対馬藩の船などが牛窓からの案内、室津での警護・連絡、食糧の支給、水・薪の供給などを行いました。

효고현립 역사박물관에 「조선통신사무로쓰어주어선비도 병풍」이 있다. 통신사는 6척의 선단이다. 오차야앞에 정박한 배 3척, 뒤로 토선(삼사의 짐을 나르는 배)이 있다.

주위는 통신사를 위해 히메지번이 동원한 배 및 쓰시마번의 배 등이 우시마도부터의 안내, 무로쓰에서의 경호·연락, 식량 지급, 물·장작 공급 등을 실시했다.



個人蔵

2. 禪昌寺, 金義信(雪峰)額・선창사 김의신이 쓴 현판

神戸市須磨区にある禪昌寺には朝鮮通信使の写字官金義信(雪峰)によって書かれた「神撫山」「禪昌寺」の扁額が残されています。金義信は1643(寛永20)年第5回と1655(明暦元年)第6回の二度にわたり写字官として来日します。

고베시 스마구에 있는 젠쇼지(禪昌寺)에는 조선 통신사의 사자관 김의신(설봉)이 쓴 칸나데야마(神撫山), 선창사(젠쇼지)현판이 남아 있다. 김의신이 선창사(젠쇼지)를 방문한 것은 1643년(간에이20년)인 제 5차와 1655년(메이레키원년)인 제6차로 두번에 걸쳐 사자관 신분으로 방문했다.



禪昌寺三門・젠쇼지 산문

출처:[https://ja.wikipedia.org/wiki/禪昌寺_\(神戸市\)](https://ja.wikipedia.org/wiki/禪昌寺_(神戸市))

コラム・칼럼

♣ たつの市立室津海駅館・타츠노시립무로쓰해역관 ♣

たつの市立室津海駅館は、近世から近代にかけて廻船問屋として活躍した豪商「嶋屋」の遺構です。建物は、嶋屋(三木)半四郎が江戸後期に建てたもので、1873(明治6)年に一部増築しています。切妻平入り本瓦葺き二階建てという室津の町家の特徴をよく残しており、座敷回りの意匠がすぐれているところからたつの市の文化財に指定されています。「魚屋」(室津民俗館)とともに、室津の大規模な町家を代表する数少ない貴重な建物です。館内では、海の宿駅として栄えた室津の歴史を、「廻船」「参勤交代」「江戸参府」「朝鮮通信使」の四つのテーマで紹介しています。

타츠노시립무로쓰해역관은 근세부터 근대에 걸쳐 선박운송업자(廻船問屋) 도매상으로서 활약한 대상인 “시마야”가 사용한 건물이다. 이 건물은 시마야(미키) 한시로가 에도 후기에 세운 것으로, 1873년(메이지 6년)에 일부 증축했다. 맞배형 기와 지붕 2층 건물로, 무로쓰 마을 가옥 특징이 잘 남아 있고, 다다미방 배치와 구조가 뛰어나 타츠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어옥(무로쓰민속관)”과 함께 무로쓰의 대규모 마을 가옥을 대표하는 몇 안 되는 귀중한 건물이다. 관내는, 항구 숙박역으로서 번창한 무로쓰의 역사를, 「회선·참근교대·에도참부·조선통신사」의 4개의 테마로 소개하고 있다.



B. 兵庫津(神戸市)·효고쓰(코베시)

1. 地域概観・지역개관

徳川幕府は、各地の大名に通信使一行の接待を命じて手厚くもてなすこととし、寄港地のひとつである兵庫津(現、神戸市兵庫区)は、尼崎藩の領地であったことから尼崎藩が接待役を命じられました。尼崎藩では宿舎の設営や食事の準備、兵庫と大坂間の警護、またその連絡調整に細心の注意を払い、藩士・領民や領内の船を総動員して準備に当たりました。尼崎藩にとっても通信使の受け入れは威信をかけた出来事でしたが、領民は受け入れのために税金を掛けられたり、人夫として徴用されて農作業等に支障をきたしたりするなど大きな負担と不便を強いられました。通信使の受け入れは、政治・経済・文化的影響から尼崎の歴史の中でも特筆すべき出来事でした。

また、通信使一行は朝鮮でも一流の学者・文人・画家・医師たちから選抜された文化使節団でもあったことから、諸藩の客館や各地の休泊先を訪れた学者・文人・医師などのほか、筆を乞(こ)う人びとが休泊先や行列の沿道で面会を求めて殺到するなど、両国の交流は庶民レベルでも行われました。通信使の来日は、政治的には複雑な背景がありましたが、両国間に世界史的にも稀(まれ)な長期にわたる親善友好関係が培(つちか)われたのは、文化の交流を通じて官民各層が触れあうことができたためといえます。

瀬戸内海第一級の外交都市、兵庫津は大船団を迎えるに当たって、尼崎藩をはじめ大坂町奉行所の役人たち関係を含めてその時の人口は3万人にふくれあがりました。兵庫津で

도쿠가와 막부는 각지의 영주에게 통신사 일행의 접대를 명하여 극진히 대접하라고 했다. 기항지의 하나인 효고쓰(현, 코베시 효고구)은, 아마가사키번의 영지였기 때문에 아마가사키번의 접대담당을 명령했다. 아마가사키번에서는 숙소의 설치나 식사의 준비, 효고로부터 오사카간의 경호, 또 그 연락 조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번사·영민(領民)과 영내의 배를 총동원해 준비에 임했다. 아마가사키번에 있어서 통신사를 맞이하는 것은 위신을 건 일이었지만, 영민은 일행을 맞이할 입에 있어 세금을 부과받거나 인부로서 징용되어 농사 등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하는 등 큰 부담과 불편을 강요당했다.

통신사의 수용은, 정치·경제·문화적 영향으로부터 아마가사키의 역사 중에서도 특별해야 할 사건이었다.

또한, 통신사 일행은 조선에서도 일류 학자·문인·화가·의사 중에서 선발된 문화 사절단이기도 해서, 각번의 숙소나 각지의 휴식과 숙소를 방문한 학자·문인·의사 등 외에도 글을 원하는 사람들이 휴식 또는 숙소나 행렬의 길목에서 면회를 바라며 물리는 등, 양국의 교류는 서민 레벨에서도 이루어졌다. 통신사의 일본 방문은 정치적으로는 복잡한 배경이 있었지만, 양국 간에 세계사적으로도 드문 장기간에 걸친 친선 우호 관계가 길러진 것은 문화의 교류를 통한 관민 각층이 서로 접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세토나िका이 제일의 외교 도시인 효고쓰는 큰 선단을 맞이함에 있어, 아마가사키 번을 비롯 오사카마치부교 등 관계자를 포함하여 인구가 최고 3만명까지 늘어났다.

효고쓰에서는 접대를 위해 룻코산지에서 28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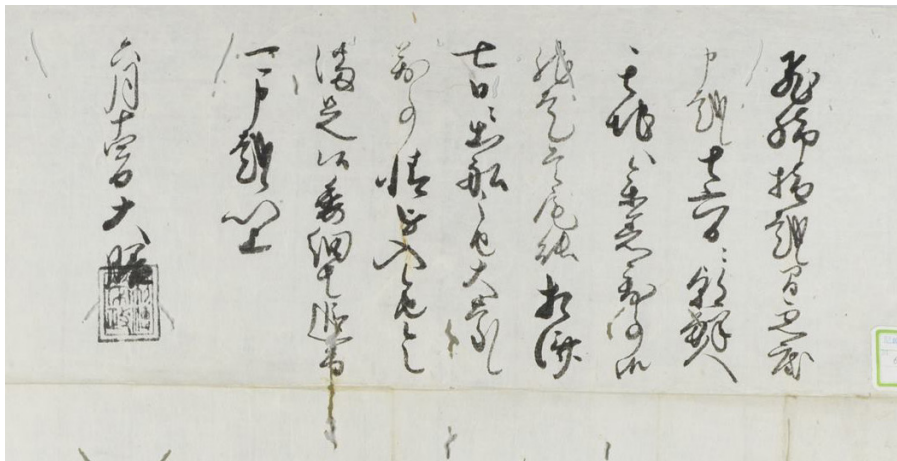
は接待用に六甲山地で28回におよぶ猪狩がおこなわれました。通信使船団は尼崎藩の数百隻の案内警護船に守られて大坂港に到着します。

1643(寛永20)年の6月6日、尼崎藩が、江戸へ向かう朝鮮通信使を兵庫津で接待します。この年は第4代将軍となる家綱の誕生を祝賀するためのものでした。通信使は、瀬戸内海は海路を利用し、途中寄港しながら移動します。尼崎藩は幕府より接待役を命ぜられており、通信使は兵庫津に上陸し、藩からのもてなしを受けました。当時の尼崎藩主は、数え年28の青山幸利(よしとし)。同年2月に父・幸成(よしなり)が他界、同3月に遺領を継いだばかりでした。写真は、同年6月14日付で、幸利から兵庫津で接待にあたった尼崎藩士、伊藤新兵衛・縣新左衛門の両名に宛てた書簡です。兵庫津での接待を終えた翌7日に、通信使が無事兵庫から出船したとの報告に「大慶」であると賀意を表し、接待にあたって両人の尽力に「満足」していると、ねぎらいの言葉をかけています。もっとも、この接待は通信使の帰路のおりにも催されます。

에 이르는 멧돼지 사냥이 이루어졌다. 통신사 선단은 아마가사키번의 경호선 수백척의 안내를 받아 오사카항에 도착했다.

1643년(간에이 20년) 6월 6일 아마가사키 번이 에도로 향하는 조선 통신사를 효고쓰에서 접대했다. 이 해 방문은 제4대 장군 이에츠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신사는 세토나이카이 해로를 이용하고 도중에 기항하면서 이동했다. 아마가사키 번은 막부로부터 접대담당을 명받았고, 통신사는 효고쓰에 상륙해 대접을 받았다. 당시의 아마가사키번 영주는 나이 28세의 아오야마 요시토시였다. 그 해 2월에 아버지 요시나리가 타계, 같은 해 3월 영지를 이어받았다. 사진은 같은 해 6월 14일자로 요시토시가 효고쓰에서 접대를 담당한 아마가사키 번사인 이토 신베에와 아가타 신자에몬에게 보낸 서한이다.

효고쓰에서 접대를 마친 다음 날인 7일에 통신사가 무사히 효고에서 출항했다는 보고에 “크게 기쁘다”라고 축의를 표하며 접대에 대한 두 사람의 진력에 “만족”하고 있다고 격려의 말을 하고 있다. 이 접대는 통신사의 귀국 항해시에도 열렸다.



加藤省吾氏収集文書(尼崎市立地域研究史料館)・가토쇼고우씨수집문서(니기시립지역연구사료관)

2. 関連人物・관련인물

青山幸利・아오야마 유키토시

尼崎藩2代藩主、青山幸利は1616(元和2)年、初代藩主・青山幸成の長男として生まれます。1643(寛永20)年に父が死去したため、家督を継ぎました。このとき、父の遺言で弟達に合わせて6千石を分与したため、尼崎藩は4万8千石となります。

1643(寛永20)年、二年前の振袖火事の教訓から、幕府は江戸の防火体制の強化を目的に大名火消を制度化します。6万石以下の大名から16家を選び、4組に編成された火消役の一家として幸利が任命されます。

1659(万治2)年2月21日に奏者番に任じられます。1677(延宝5)年、播磨国における幕府領の検地を勤めます。藩政では名のある浪人を登用して家臣団の刷新を行い、治水事業を行っていま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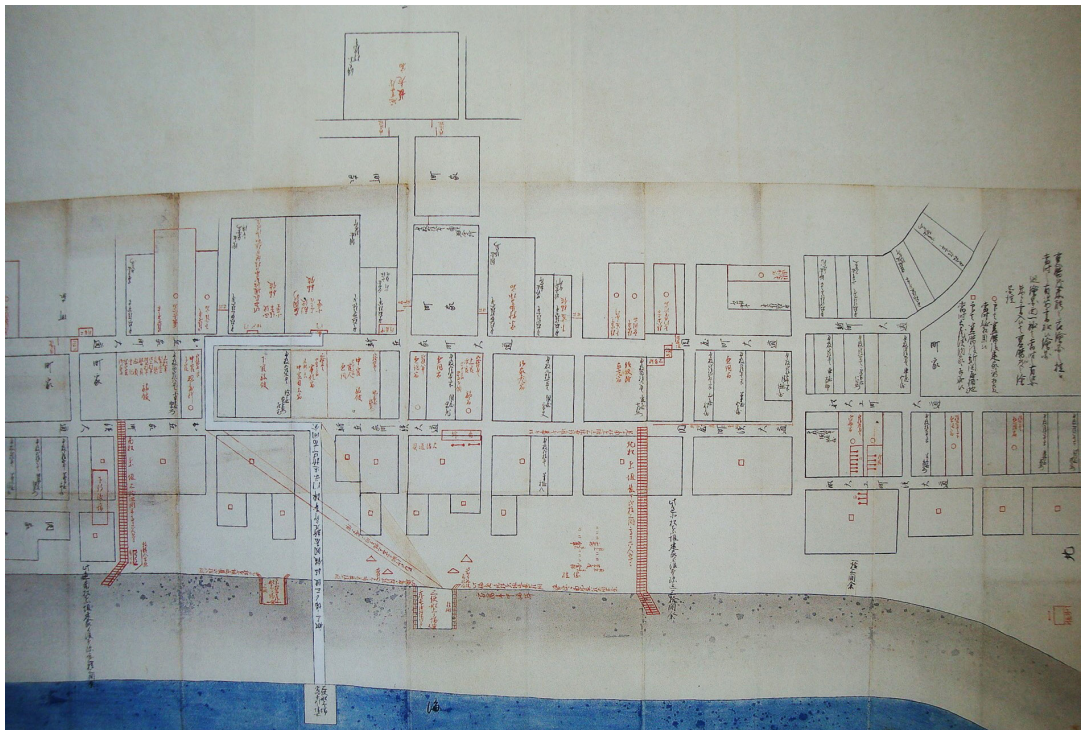
아마가사키 2대번주 아오야마 유키토시는, 1616년 초대 번주 아오야마 요시나리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1643년 아버지 사망 후 가장권(家長權)을 상속받았다.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동생들에게 모두 6천석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아마가사키 번은 4만 8천석이 됐다. 1643년, 2년 전의 후리소데 화재에서 교훈을 얻어 막부는 에도의 방화 체제 강화를 목적으로 영주가 운영하는 소방 조직을 제도화했다. 6만석 이하의 영주 중에서 16가문을 선발하여 4조로 편성된 소방을 담당하는 가문의 하나로 요시토시가 임명됐다. 1659년 2월 21일에 소우자반(奏者番; 에도성에서 무사 예식을 담당하는 직책)에 임명되었다. 1677년 하리마 국에서의 막부 직할 영지에 있는 논밭의 면적, 경계, 수확고 등을 측량하는 일을 담당했다. 번정에서는 유명한 낭인을 등용해 가신단을 쇄신하고, 치수 사업을 실시하였다.

3. 疲れ取りの宿・ 숙소

三使はじめ上官は浜本陣と呼ばれる大商人宅に、中・下官はその他の商家や集会所、接判僧は阿弥陀寺に分宿します。1764(宝暦14)年には正使・従事官は絵屋右近右衛門の家に、副使・上々官は網屋新九郎の家に、中官は肥前屋粘右衛門の家が宿泊に提供されている。兵庫津南浜の船大工町、関屋町、新在家町、出在家町の4町が担当しました。

삼사를 비롯한 상관은 하마본진이라 불리는 대상인집에, 중·하관은 기타 상가와 집회소, 접대하는 승려는 아미타사에 나누어 숙박했다.

1764년 정사·종사관은 그림 가게 우콘 우에몬의 집, 부사·상상관은 아미야 신쿠로의 집, 중관은 히젠네바우에몬의 집이 숙소로 제공되었다. 효고진 남측 해변의 후나다이쿠쵸, 세키야쵸, 신자이케쵸, 데자이케쵸의 4개 마을이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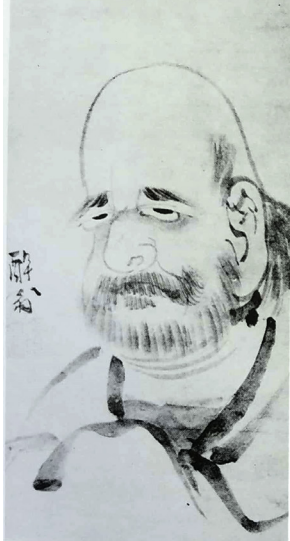


写真は宝暦14年(1764)の寄港時の兵庫津における朝鮮通信使宿舎の割り当て図です。

사진은 1764년 효고즈에 기항했을 때 조선통신사 숙소 배정도다.

4. 残された遺跡・남겨진 유적

1. 金明国筆達磨図・김명국의 달마도



左:個人藏(좌,개인소장), 右: 尼崎市所藏資料(우, 아마가사키시 소장)

1636(寛永13)年と1643(寛永20)年の2回にわたって来日した画員、金明国が描いた作品です。来日の際には、日本の文人らがその筆を乞いに押し寄せ、絶えず紙片に絵を描いていたといえます。通信使の画員の内、唯一2度の来日を果たしたためか、彼が日本で描いた作品は主に寿老・達磨・神仙等多く伝存しており、その画風は速筆で禅の感覚が溢れるような特徴があります。

自ら「酔翁」と号したように、酒を好み、人が絵を求めた際にはまず酒を満酔するまで飲み、制作は必ず大酔の後に取り掛かったともいわれ、また得意の作はいずれも酔った後の作であるという逸話も残っています。

1636년과 1643년 2차례 방일한 화가 김명국이 그린 작품이다. 일본 방문 때는 일본의 문인들이 그에게 그림을 받기 위해 몰려들어, 끊임없이 종이에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통신사를 수행한 화원들 중 유일하게 2번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인지, 그가 일본에서 그린 작품은 주로 장수 노인, 달마, 신선 등이 많이 전해지고 있고, 그 화풍은 속필로 선미(禅味; 선종이나 선문화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가르킴)가 넘치는 특징이 있다. 자신의 호를 취옹이라고 한 것처럼 술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그림을 요구했을 때는 우선 술을 만취할 때까지 마시고, 제작은 반드시 대취 후에 착수했다고 하며, 또한 자신이 잘 그리는 그림은 모두 취한 후에 그린 작품이라는 일화도 남아있다.

2. 李聖麟筆寿老人図・이성린의 수로인도

1748(延享5)年の通信使の画員として来日した李聖麟が、日本滞在中に描いた作品で、「寿老人図」の上には、同じく副使として同行した金啓升(キムケスン)筆「寿福」の二文字が書かれています。

江戸からの帰路に大坂の絵師大岡春トと交歓し、その画会の席上で聖麟は梅月と福寿図を、春トは野馬・山水・梅花・蓮鷺・芦雁・長果郎図をそれぞれ描き、互いにその画図を交換して永く家蔵することを誓いあいました。後日、大岡春ト一門が宴を催し、慶賀の漢詩や和歌、並びに俳諧が収めた木版本を刊行する際、李聖麟の画図を付して『家彪集』と名付けられました。また、1753(宝暦3)年に刊行した『画史会要』にも聖麟の絵を明朝画の名画の作例として掲載し、通信使画員の画技を高く評価し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ます。

1748년(연효우 5년)의 통신사의 화원으로 방일한 이성린이 일본 체류 중에 그린 작품으로 “수로인도” 위에는 부사로 동행했던 김계승의 글씨 “수복” 2글자가 쓰여 있다. 에도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사카의 화가 오오카 하루보쿠와 교환하고, 그 그림석상에서 이성린은 매실과 복수도를, 하루보쿠는 야생말·산수·매화·연로·아시안·장과로도를 각각 그리고, 서로 그 그림을 교환해 오랫동안 집에 보관할 것을 맹세했다. 후일 오오카 하루보쿠 집안이 연회를 열고, 축하의 한시와 와카, 그리고 하이카이(俳和)가 수록한 목판본을 간행할 때, 이성린의 화도를 붙여 『家彪集, 케바쿠집』이라고 이름 붙였다. 또 1753년 간행한 『화사회요』에도 이성린의 그림을 명조화의 명작으로 예로 게재하고, 통신사 화원의 그림기법을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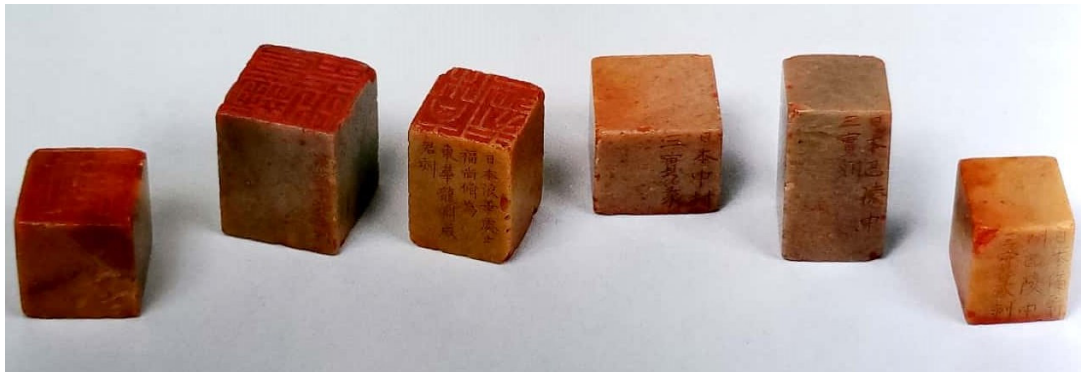


出所:尼崎市ホームページ
아마가사키시홈페이지

3. 木村兼葭堂他所刻成大中印章・기무라가네 요시도 작품 인장

1764(宝曆14)年に通信使の書記として来日した成大中に、日本の文人らが彼の印を彫って贈ったものです。成大中は多くの日本の文人らと筆談して最も文名を馳せた人物です。印章の側面には大坂の文人木村兼葭堂・福原承明(尚修)、岡山の文人中村三実、篆刻家の澤田東江の名が刻まれています。当時の両国の友好関係を象徴する資料です。

1764년(메이와 원년)에 통신사 서기로 방문한 성대중에게 일본의 문인들이 그의 도장을 파서 보낸 것입니다. 성대중은 많은 일본 문인들과 필담으로 가장 문명을 떨친 인물이다. 인장의 측면에는 오사카의 문인 기무라가네 요시도, 후쿠하라 마사아키, 오카야마의 문인 나카무라 산미, 전각가 사와다히가시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당시 양국의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자료다.



木村兼葭堂他所刻成大中印章 尼崎居育委員会蔵 기무라가네 요시도 아마가사키교육위원회 소장

京都文化博物館 『こころの交流朝鮮通信使-江戸時代から21世紀へのメッセージ』 2001年4月よ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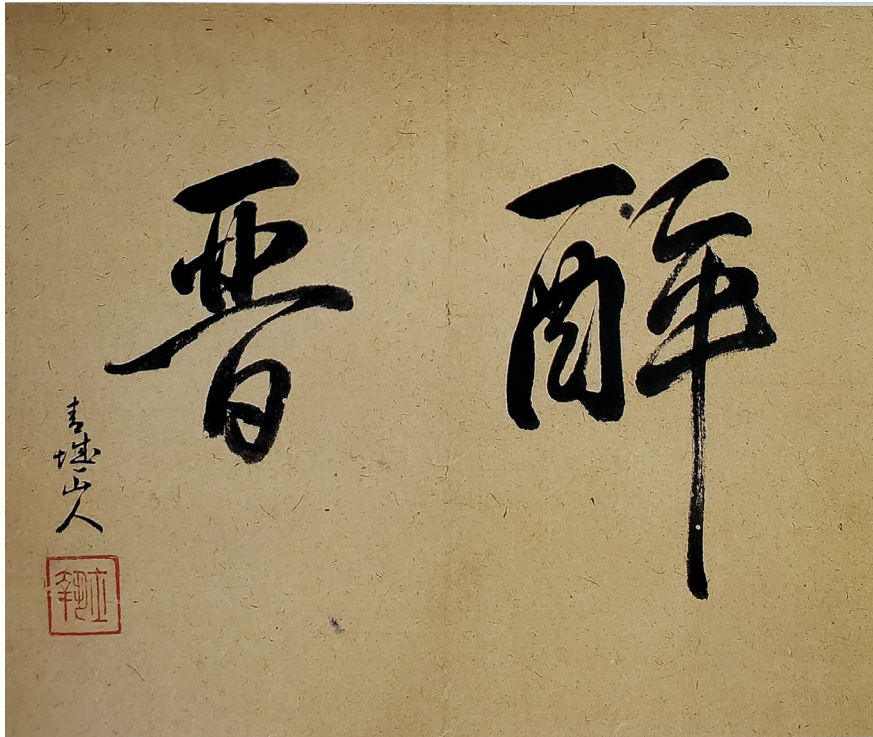
교토문화박물관 『마음의 교류 조선통신사 에도시대부터 21세기에의 메세지』 2001년 4월

4. 韓天壽醉晋齋書帖録跋・한천수취진재서첩목록발서첩

韓天壽(1727~1795)は、醉晋と号する伊勢松坂の篆刻家・文人で、三韓時代の馬韓・余璋王の子孫だと称して、姓名を朝鮮式に韓天壽と名のりました。韓天壽は、1764(宝暦14)年3月11日に通信使一行が江戸をたつて品川の客館に着いた際、篆刻家澤田東江に伴われて客館を訪れます。東江からは製述官南玉(ナムオク)と書記成大中(ソンテジュン)に依頼された印章2顆が贈られ、通信使兩名からは韓天壽の書帖の題跋を書いて帰途大坂から送ることが約束されます。韓天壽は翌日も雨の中、藤沢まで通信使を見送り、涙を流して別れを惜しました。

한천수(1727~1795)는 취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세마츠자카의 전각가·문인으로, 삼한 시대 마한의 여장왕(馬韓余璋王)의 자손이라고 칭하며 이름을 조선식으로 한천수로 적었다.

한천수는 1764년(호레키 원년) 3월 11일에 통신사 일행이 에도를 거쳐 시나가와의 객관에 도착했을 때 전각가 사와다 토우코우와 함께 객관을 방문했다. 토우코우는 제술관 남옥과 서기 성대중에게 의뢰받은 인장 2과를 증여하고 통신사 두 사람에게서는 한천수의 서첩 제목과 발문을 써서 귀로에 오사카에서 보여줄 것을 약속받았다. 한천수는 다음 날도 빗속에 후지사까지 통신사를 배웅하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아쉬워했다고 한다.



韓天壽の『醉晋』・한천수의 『취진』
 尼崎市教育員委員会蔵・아마가사키시교육위원회 소장